개혁주의 구약 성경 읽기

김 윤 희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최만수 교수는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보수주의,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의 성경 읽기가 하나의 읽기의 전략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3대 원칙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을 전제 조건으로 한 구약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구약 읽기에서는 구약의 중심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그 읽기 중심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context)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신학적 구약 읽기와 하나님을 한국의 토착화된 종교나 타 종교에서 찾으려는 다원주의 구약 읽기를 거부하며 경계시키고 있다.

성경 중심의 구약 읽기에서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먼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며 (구약)성경의 무오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 중심의 구약 읽기에서는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개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개혁가들을 인용하며 교회의 올바른 사명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교회의 우선 순위인 예배를 강조하며 바른 예배를 찾는 모습과 이 땅에서의 교회의 문화적 사명을 촉구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요약을 바탕으로 최만수 교수의 논문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최만수 교수가 결론에서 지적한 대로 위의 3가지의 구약 성경 읽기의 요소들은 급변하는 성경 해석상의 다양한 접근 속에서 또한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적인 영향 속에서 개혁(보수)주의의 정체성(identity)을 찾고 구약 읽기의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성경 해석의 방법들이 바뀌고 시대적 요구가 변하고 학문적 진보가 있을지라도 위의 요소들은 보수 또는 열린 보수에 관계없이 '보수'라는 명칭을 자처하는 한 타협할 수 없는(non-nego-

tiable) 근본적인 요소들임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즉, 보수가 보수됨이 없이는 '열린 보수' 라는 단어 자체가 사상누각임을 보여 주는 좋은 원론이라 하겠다.

둘째, 성경 중심(Bible-centered)의 구약 읽기 속에서 논문자는 성경 해석의 방법론으로써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문법적, 역사적, 문헌적(literary) 그리고 문화적 문맥(context)에 주의를 기울이는 읽기 방법을 정착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성경 비평학적 해석학적 방법론들을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바로 이면이 열린 보수의 '열린' 이라는 측면이라고 보여지며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in faith) 비평학적 방법론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회 중심(church-centered)의 구약 읽기에서 논문자는 기독교의 이 땅에서의 문화적 사명, 즉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열린 보수의 개혁적인 방향과 과제를 지적한 긍정적인 면이라 평가되어진다.

다른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여운을 남기고 논평자로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논문자의 의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논평자로서 '열린 보수주의' 의 구약 신학에서의 바람은 원론을 다지는 논지보다는, 그것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대화에서 더 적절하다고 보며, 오히려 보수와 열린 보수의 차이 또는 갈등을 분명히 보여 주는 논지가 아쉽다고 보겠다. 물론 논문자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서론에서도 엿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위에서의 긍정적인 면에서 지적했듯이 비평적인 해석방법론들을 유용할 수 있음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면을 좀더 강화해서 다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로 많은 복음주의 구약학자들이 비평적인 방법론들과 주석들을 성경 연구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결론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Brevard Childs가 주장한 정경 비평(Canon Criticism)도 그 전제에 있어서는 복음주의와 완연히 다르지만 정경의 완성된 형태(final form)를 가지고 해석의 목적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복음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이미 미쳐오고 있음을 보아도 과거보다는 비평학자들과의 교류가 보수 진영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보수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더라면 같은 구약을 하는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둘째, 논문자는 서론 부분에서 '20세기 구약 성경 읽기의 흐름' 이라는 제목하

에 저자 중심, 본문 중심, 그리고 독자 중심의 구약 성경 읽기를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논평자가 보았을 때에 이 문제를 다루는(놓쳤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이 분명치가 않다. 이 논지들이 어떻게 열린 보수의 이슈와 연결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것 같다. 단지 독자 중심의(reader-centered) 읽기를 하나의 미래의 방향성으로 언급하면서 이것을 개혁주의의 성경 읽기가 독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단지 개혁주의의 성경 읽기의 입지를 끌어내기 위한 발판으로써 위의 서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3가지의 읽기 모두 포용되어야 함을 나타내면서 논지로 들어가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본문 연구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며 성경 본문의 의미(meaning of the text)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의 이슈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해석상의 과제다. 보수주의는 늘 성경의 역사성(historicity)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문 의미의 주체가 완전히 독자로 넘어가는 데 대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논문자가 좀더 이 이슈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셋째, 성경 중심의 구약 읽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문자는 성경의 무오성을 언급하며 Donald Bloesh를 인용하는데 인용된 문구에 따르면 Bloesh는 역사적 과학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성경이 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인용 뒤에 바로 논문자는 "이것이 정통적 기독교 신학으로써 개혁신학이 초기부터 정경의 무오성을 소중하게 지켜왔던 것이다" (9쪽)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평자는 논문자의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인용된 문구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분명 전통적 보수주의자의 입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열린 보수자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함인가? 부연 설명이(clarification)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사소한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교회 중심의 성경 읽기를 설명하며 논문자는 오늘날 열린 예배에 대한 관심이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 중심의 성경 읽기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열린 예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각자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지만 논평자의 소견으로는 '열린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순수성과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예배의 형식(form)을 상황화(contextualize)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교회 중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입장은 전형적인 폐쇄된 보수주의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다섯째는 논문자가 나름대로 구약에서의 보수란 무엇이며 왜 구약을 공부함에

있어 열린 보수적인 구약 읽기가 필요한 것인지의 원론적인 문제를 언급하였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위의 여러 가지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논문자는 부여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이슈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